

소중한 우리의 뿌리를 잘 가꾸어 빛나게하자!

대중회 회장 趙 德 善

순창조씨는 고려초 시조 조장(趙子長)께서 창시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여년 34대에 걸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빛나는 전통과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며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도리이건만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파에 시달리며 살아오다 보니 뿌리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기 쉽다. 나 역시 따돌이(군인) 공직생활로 오랜 세월 전국을 전전하며 살아왔으니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내가 왜 뒤 늦게 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동기부터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뿌리 찾기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성씨에 관한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 1992년 봄, 조용락 전임회장이 한 문지의 원고를 건네 주면서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이 있다. 그 원고의 내용인 즉 “한국성씨보감”이라는 책자 중 순창조씨에 관한 원고로서 이를 우리족보와 비교 검토한 결과 순창조씨의 별력, 유래, 역대인물 등에 등재된 184명중 무려 167명이 우리 문중인물이 아닌 반면 우리 문중에서 배출한 인물은 고스란히 빠져 있으니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을 살펴본 바 성씨의 고향, 한국인의 뿌리 등에서는 엄청난 오류가 발견되고 한국인의 족보, 한국성씨보감, 성씨총람 등에는 순창조씨의 성씨 자체가 완전히 빠져 있으며, 한국성씨대관, 한국족보대전, 한국계행보, 뿌리와 얼, 뿌리(성씨, 족보) 등은 한결같이 그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여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고 참참한 심정에서 고민하여 오던 중 궁여지책으로 천하비제하고 불민함을 무릅쓰고 감히 “순창조씨의 뿌리”를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소중한 우리의 뿌리가 시중에 나와있는 책자마다 누락되거나 크게 잘못된 것은 그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 미리 미리 누구나 알기쉽게 체계적으로 씨족사를 정립해서 적시 적절하고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한 잘못이 우리에게 있으니 부끄럽기 한이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 빨리 이를 각성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또다시 이와같은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종친들의 가슴마다 뿌리의식을 깊이 심어주므로서 빛나는 전통은 계승발전하고 일가간에 화합하는 마음은 샘솟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밝은 미래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니 비록 뒤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씨족사인 뿌리를 잘 가꾸어 선조들의 위업을 기리고 빛나게 하였으면 하는마음 간절하다.

우리의 소중한 뿌리를 더도 덜도 아닌 사실 그대로를 체계적으로 알기쉽게 편찬하려고 족보와 시중의 문헌을 수없이 뒤적이고 문중의 원로 또는 종사에 박식한 종친의 자문과 종보 제2호(93.8.15)부터 “순창조씨의 뿌리”를 연재하여 폭 넓게 고견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의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료의 빈곤과 능력의 한계 등으로 미진한 점이 비일비재하니 뿌리 정립을 위해 종친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순창조씨의 뿌리

④ 역대주요인물 (조선조)

① 海州牧使를 역임하고 原從功臣에

오른 11世 趙頊(1406~1473)

자는 欽之이요, 아명은 光生이다. 司馬試에 합격하고 義禁府都事, 工曹佐郎, 刑曹正郎, 濟用監正 등을 두루 경력하였으며 세종28년(1446) 司憲府持平 으로 있을때 국론의 대상인 궁내 불사 정지를 상소하여 윤치를 받았다. 문종이 즉위한 1451년 溫陽郡事를 거쳐 선조2년(1456) 原從二等功臣에 오르고 세조12년(1466) 海州牧使 겸 勸農使를 지냈다.

- 참고: 1. 양도공파의 직조로서 29세손 “柱, 基, 炳, 丙, 燮” 항렬 기준하여 18대 조고이다.
2. 순조원년(1801) 족보일로 22세손 重春 (성종)과 23세손 陽鎮 (이안) 두분이 순창에 간바 순창군에 공의 司馬案이 있고 司馬齊 도 세워져 보관하고 있으며 본조 生員案에 수제이고 본군 인물지에도 수제로 되어 있었다.
3. 공의 아들 楡는 평택 대종손계파를, 楡는 여주종파를 攄은 피산 피세공파에 입양하여 대를 이어왔다.

② 東萊府使를 역임하고 李施愛亂을 토벌하여 原從功臣에 오른 12世 趙宗 (1437~1506)

약관의 나이에 文科에 급제하여 東萊府使, 隱城都護府使를 지냈다. 세조13년(1467) 吉州의 적 李施愛亂을 당하여 선봉장으로 나가 싸워 이를 토벌하였으며 다음해 兪知 中樞府使를 계수받고 原從功臣에 올라 피산 문광 七忠祠에 제향되었다.

참고: 피세공파의 직조로서 29세손 “柱” 항렬기준 17대 조고이다.

③ 成均館司成을 역임하고 驪州에 처음 자리잡은 13世 趙演 (1553 졸)

자는 守約이며 중종 3년(1508) 渴聖試 乙科에 급제하고 太常禮賓 二少正이 되어서 成均館司成을 지냈다. 순창조씨가 驪州에 사는것이 이로부터 시작이다.

참고: 여주, 단양, 예천, 상주파의 직조로서 29세손 炳, 丙, 燮항렬 기준 16대 조고이다.

④ 깊은 학식과 청덕을 겸비한 避世君子 14世 趙世球 (1483~1550)

자는 汝調이요 호는 松齊이다. 靜菴 趙光祖와 15년 여에 걸쳐 서로 문필을 논하며 도의의 벗으로 종사하고 학문이 뛰어나 앞날이 촉망되었다. 그러나 瑞敬王后가 죄도없이 폐출되고 무덤한 신하들이 조정에 가득하며 이어서 기묘사화(1519)로 靜菴 선생을 비롯한 사람의 화를 보고 명리에 뜻이 없어 피산 송평으로 낙향하여 피세정 유허에 다시 정자를 세우고 여기에서 선조의 충절을 기리고 높은 뜻을 되새기며 은거하였다. 인조 을사년(1541) 軍資監奉事를 계수하였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아니하였다.

참고: 1. 피세공파의 직조로서 29세손 “柱” 항렬 기준

15대 조고이다.

2. 松齊銘(靜菴 趙光祖 지음)
有齊無名, 有名無銘, 我今銘之, 有齊松坪
(제실은 있으나 이름이 없도다. 이름은 있어도 명기가 없도다. 내 이제 명기하노니 송평 제라 하노라)

⑤ 임진왜란을 맞아 忠州 牛牧들에서 고전분투하다 순국한 15世 趙服

(1525~1592)

자는 安仲이며 피산 송평에서 출생하고 명종18년(1563) 武科에 급제하였으며 명종20년(1565)에 五衛郡長을 거쳐 선조2년(1569)에 長淵縣監을 지냈다. 그 후 湖南 左水營廣候를 거쳐 申稔장군의 막료로 종사하다가 監察, 司鹽署令, 洪州判官, 海州判官, 靑道郡守, 訓鍊正 郇內乘, 价川郡守 등을 두루 경력하고 선조23년(1590) 威安郡守를 끝으로 고향으로 은퇴하였다. 그러나 선조25년(1592) 임진왜란의 국난을 맞아 李鎰과 申稔장군이 상주와 충주에서 대패하고 백성은 도란에 빠지게 되니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나라가 위급한 이때 편안히 있을수 없었다 격문을 써서 원군간에 보내어 의병 천여명을 규합 이해 10월 장수 鄭文龍, 대장 孫應伯과 같이 忠州牛牧들에 나가 싸우던중 기습을 당하여 두장수는 도망가고 원군은 끊어지져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중과부적으로 순국하기에 이르렀다. 후에 兵曹參判에 증직되고 宣武功臣에 올라 피산 문광 七忠祠에 제향되었다.

참고: 1. 장춘, 이곡파의 직조로서 29세손 “柱” 항렬 기준 14대 조고이다.

2.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범으로 1592년(선조 25년)부터 1598년까지 7년에 걸친 전쟁이며 1592년 4월에 부산에 상륙하여 5월에 서울이 함락되었다.

⑥ 三和縣令을 지내고 掌樂院正에 증직된 15世 趙昕 (1527~1594)

자는 景賓이며 명종16년(1561) 司馬試에 급제하고 歸厚署別坐, 司遵直長, 刑曹佐郎, 果川縣監, 戶曹正郎, 永平縣令, 狼川縣監, 漢城府判官 등을 두루 경력하였다. 그후 三和縣令으로 있을때 임진왜란(1592)의 국난을 맞아 왕이 義州로 안전하게 난을 피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하였으며 掌樂院正이 추증되었다.

참고: 여주, 단양, 예천, 상주파의 직조로서 29세손 炳, 丙, 燮항렬 기준 14대 조고이다.

⑦ 임진왜란의 국난을 맞아 초야에서 의병을 규합 앞장서 싸워 宣武功臣에 오른 15世 趙胖 (1528~1593)

자는 德潤이며 음사로 秉節校尉, 司果를 지냈다. 선조 25년 (1592) 임진왜란의 국난을 맞아, 영남 일원이 무너지고 적은 파죽지세로 忠州, 槐山 방면으로 침범하여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 초야에서 중형 趙服과 더불어 원근간에 격문을 돌려, 의병 권여명을 규합, 忠州 남쪽 牛牧들에 나가 싸워 백여급의 적을 베는 등 빛나는 공훈을 세웠다.

그러나 이때 고립무원으로 군량이 떨어져 급히 피산으로 가서 군량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니 이미 중형 趙服은 순국하고 의병은 해산되어 할일없이 형의 시신을 찾아 고향에 장례하고 분통함을 참을길 없어 3개월후 분사하기에 이르니 工曹參議에 증직하고 宣武功臣에 올라 피산 문광 七忠祠에 제향되었다.

참고: 삼고, 갑산, 송헌, 원주, 소암, 한계, 락촌, 행정, 가주, 담동, 마전과의 직조로서 29세은 “柱” 항렬 기준 14대 조고이다.

⑧ 中和府使와 義州府尹을 지낸 16世 邦穎 (1535~1576)

자는 仲愷이며 명종 16년 (1561) 生員 進士科에 합격하고 명종 19년에는 또다시 文科에 급제하였으며 交河縣監, 平安評事朝散大夫 中和府使를 거쳐 義州府尹을 지냈다.

참고: 평택, 서산과의 직조로서 29세은 “柱” 항렬 기준 13대 조고이다.

⑨ 陽智縣監을 지내고 국난을 맞아 의병을 일으켜 진충보국한 16世 趙德恭 (1547~1597)

자는 士愿이며 지혜와 용기를 겸비하고 무예에 능하였다. 禁禦護軍總管으로 뽑혀 守禦監正을 지내다가 虎榜에 급제한후 宣傳官, 戶曹正郎, 訓練主簿를 경력하고 또다시 謁聖試에 급제한후 陽智縣監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선조 25년 (1592) 임진왜란의 국난을 당하여 초야에서 아우 趙德儉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여러번 싸워赫赫한 전승을 거두었다. 이때 숙부 趙服이 충주 무목들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정병을 이끌고 나아가 적중에서 숙부의 시체를 안고 돌아와서 장례하니 후에 刑曹參議에 증직되고 宣武功臣에 올라 피산 문광 七

忠祠에 제향되었다.

참고: 문동, 동막, 진천, 팔송과의 직조로서 29세은 “柱” 항렬 기준 13대 조고이다.

⑩ 초야에서 의병을 규합, 앞장서 싸우고 德川郡守를 지낸 17世 趙塾 (1556~1637)

자는 叙倫이요 牛溪 (成渾)의 제자이고 栗谷 (李珣)의 문하인으로서 두분 선생으로 부터 일찌기 나라의 간성이 될 목임을 인정받고 무예를 익히는데 힘썼다.

선조 25년 (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 백성이 도탄에 빠지자 의병을 규합, 趙服 (15世)이 원수가 되고 趙德恭 (16世)이 부원수, 공이 선봉장이 되어 피산방어에 임했다.

그후 지방에서 합세한 의병 4천을 이끌고 忠州 南倉에 진출했으나 뜻밖에 모친상의 부음을 받고 용지를 떠보지도 못하고 애석하게 물러서게 되었다.

그러나 곧 中宗 趙服이 전사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의분을 참을길 없어 집안일은 아우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달려가니 숙부 趙德恭은 中宗 趙服의 시체를 찾아 안고 돌아갔으며 의병은 해산되어 할일없이 방황하던중 피산 전비 全有亭이 의병을 규합, 공으로 하여금 선봉장을 삼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가 全有亭이 원수가 되고 공이 부원수가 되어 국난극복에 최선을 다하였다.

공의 용맹과 공훈은 인정받아 그후 宣傳官訓練主簿, 宣略將軍訓練院判官, 訓練院僉正, 都摠府都事 (1602), 都摠府典籍 등을 두루 경력하였다.

선조 36년 (1603)에 文科에 급제하여 備邊郎, 海州判官 (1608), 訓練院判事 겸 僕內乘 (1606), 德川郡守 (1608), 司僕判事 (1611)를 거쳐 광해 6년 (1614)에 嘉山郡守를 끝으로 향리로 물러났다.

인조 2년 (1624)에 洪州營將을 제수받았으나 병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인조 13년 (1635)에는 노인을 우대하는 예로서 僉知 中樞府事 嘉善大夫 同知 義禁府事 五衛都摠府 副總管 겸 忠壯將을 제수 받았다.

참고: 안촌, 쌍곡과의 직조로서 29세은 “柱” 항렬 기준 12대 조고이다.

사정공 (11세) 동래공 (12세) 선전공 (13세) 3대의 묘소 이장 완료

사정공, 동래공, 선전공 등 3대에 걸쳐 일곱분을 광덕리 아미산에서 송평리 뒷산으로 1994. 4. 9 많은 후손들의 참여에 성공적으로 이장하였다.

해에서 이날 송재공(14세)의 효수도 단장하고 노년 송재공을 포함해서 4대에 걸친 묘비도 새로히 입석하였으니 더욱 뜻깊은 일이다.

이번에 이장한 동래공(휘 棕)은 대종손계과 해주목사공(휘 頊)의 아들로서(양도공의 증손자, 서산공의 손자) 피산 피세공과 사정공(휘 旅)에게 입양해서 후를 이은 어른이며 그분의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이장한 것이다.

이로서 피산 송평 선영에는 대종손계과에서 보면 직조로 문정공(8세)과 양도공(9세) 두 대의 선조 산소를 모시고 피산 피세공과 친체에서 보면 직조로 문정공을 비롯해서 피세공(9세) 진사공(10세) 사정공(11세), 동래공(12세) 선전공(13세) 송재공(14세) 등 7대에 걸친 산소를 모시고 참판공과(삼고, 감산, 송현, 원충, 소암, 한계, 락촌, 행정, 가주, 탐동)는 참판공(15세 휘 胙)과 좌랑공(16세, 휘 鶴立) 두 대를 더하여 9대에 걸친 산소를 모시게 되니 이는 전국에서도 보기드문 세장지지(대대로 선대의 묘가 있는곳)이다.

이번 이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는데 있어서 피산 종친회장겸 이장추진위원장 趙俊善 부위원장 趙泰一,

총무 趙伸, 리 노고가 크며 단양 趙永秀종친이 노구를 무릅쓰고 비문을 정성드려 써서 주어 뜻이깊고 趙鉉周종친이 물심양면으로 앞장섰으며 많은 종친이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찬조하고 협조해 주었다.

- 100만원 찬조한 분
삼고 조현주, 팔송 조태일, 행정 조덕선
- 20만원이상 찬조한 분
마전 소승주(50만원), 장촌 조종성, 성종 조태동, 송현 조규선(각각 20만원)
- 10만원 찬조하신 분
원충 조준식, 팔송 조태윤, 팔송 조창식, 삼고 조우식, 삼고 조명식, 가주 조우식, 탐동 조근식, 행정 조태윤, 기성 조홍선, 기성 조인선, 성종 조홍식, 성종 조용주, 성종 조태승, 성종 조태문, 성종 조태능, 성종 조태웅, 청안 조태복, 송현 조증식 ※ 예천 조문용
- 중파 찬조금
탐동과 200만원, 참판공과 30만원, 송현과 25만원, 원충과 25만원, 팔송과 20만원, 안촌과 30만원 (피산종친회 총무 조증식 자료제공)

회비 및 찬조금

송금구좌	우체국	011775-0046769-11	조 덕 선
	농협	067-01-221618	
	국민은행	025-01-0315-181	

※ 송금자 명에 필히 파를 명시 바랍니다.

1. 총괄표

기간	구분	인원	회비	찬조	계
93. 3. 31~93. 7. 31(종보2호)		147	2,940,000	30,000	2,970,000
93. 8. 1~93. 11. 30(종보3호)		111	2,165,000	550,000	2,715,000
93. 12. 1~94. 2. 28(종보4호)		152	3,040,000	110,000	3,150,000
94. 3. 1~94. 5. 30(종보5호)		22	465,000	100,000	565,000
합	계	432	8,610,000	790,000	9,400,000

2. 회비 및 찬조금 납부자(94. 3. 1~94. 5. 30)

※ 찬조금: 탐동: 조용식 80,000 예천: 조찬규 20,000 계 100,000

※ 회비: 평택: 건주, 무평, 순기 여주: 인상, 병민, 병석, 병인, 병철, 영육, 덕상, 병로(25,000)

상주: 정부, 장부, 남근, 일훈, 영훈, 석훈

기성: 태식(30,000) 태명(30,000)

탐동: 용식, 병국, 정재 계: 465,000원



1. 주소를 이전하거나 현재까지 대종회에 등재되지 않은 종친의 주소를 빠짐없이 신고 바랍니다.
2. 회비미납 종친은 회비납부에 협조바랍니다.
3. 인재, 사업, 사회활동, 미담등 종보에 게재할 자료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